전남 金永玉씨를 찾아서
장흥「병영콩나물」

김영옥씨의 콩나물공장
장소도, 시설도, 이렇다할 특징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가 걸어온 고달픈 인생살이와 그의 인생에서 풍기는
가냘품은
연약한 하나의 콩나물을 연상케 하지만
그는 결코 나약하지 않고 ……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도 1호선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서울-부산간 일반국도가 1호선이 될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 1호선은 서울에서 대전을 경유하여 목포까지 이어지는 도로이다.

그리고 목포에서 순천과 마산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도로가 국도 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국도 2호선이 지나가는 곳,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목포에서 동쪽으로 약 50km지점에 위치한 장흥, 장흥읍 자체는 여타 지방도시와 같은 평범한 소도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육지로서는 거의 남쪽끝에 있어서인지 남도 냄새가 물씬 풍긴다.

국도 2호선이라는 호칭에 비하여 지나다니는 교통량이 비교적 한산한 느낌을 주는것은 영남지방 쪽에 치우쳤던 공업정책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뒷바침 해준다. 한가롭게 도로 가운데에서 노는 동네견공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평화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는 동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없으니 한결 쾌적하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78번지 장흥「병영콩나물」집, 바로 김영옥씨(당60세)가 20여년간 삶의 터전으로 닦아온 곳이다.

2남2녀의 자녀를 두고 지금은 모두 장성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고 막내딸만 대학에 재학중이다.

김영옥씨가 60평생에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자식들이 모두 별탈없이 훌륭하게 자라주었다는 것을 퍽 대견스럽게 느끼고 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그저 좀더 잘 되어 주었으면 하는 부모로서의 욕심이라고 할까?

일제치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25이전까지는 목포시청에 근무하였으며 그후 은행에도 약5년간 몸 담았던 경력이 있다.

성장과정에서부터 좋지 않았던 건강때문에 부득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것이 두채업

에 종사하게 된 동기이다.

"건강관계로 직장을 그만 두었지만 당장 생계가 걱정이되어 서울에 있는 외사촌을 찾아 갔읍니다. 그때 당시 외사촌은 두채업을 하고있었고 마침 정월대보름 때인지라 키워논 콩나물이 없어서 못팔정도로 호황이었읍니다."

자기 이상에 맞는 사업을 벌이자니 자금여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으므로 우선 사과상자 몇개로 콩나물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겨울에 시작하여 잘 자라던 콩나물이 날씨가 더워지면서부터 첫번째 시련이 왔다.

콩나물이 발아가 잘 않되고 썩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원료콩의 구입방법을 몰라 후회를 많이 했다한다.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노력하고 모르는 것을 경험자에게 자문을 받아 콩나물 인생으로서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갔읍니다.

사과상자는 일일히 말려서 다시 사용하고 원료콩의 구입에서도 차츰 경험이되어 우량품을 선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물주는 방법과 기타 콩나물과 재배에서 나름대로의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콩나물의 뿌리는 물을 찾아 자꾸 자라게 돼있읍니다. 제때에 적량의 물을 주지 않으면 잔뿌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판매고와 직결되고 기존거래처의 유지에도 지장이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세심한 면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콩나물재배를 한 결과 고정거래처 약 20여군데와 5일마다 서는 시골장으로도 출하하고 있어 장흥지역 콩나물시장의 약60~70%를 점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도소등의 관청에도 납품을 하였으나 현재는 자체로 자급하기 때문에 거래주문이 끊긴 상태에 있다.

김영옥씨의 콩나물 공장은 장흥 상설시장변에 위치하고 있어 출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곳이 바로 큰 개천변이라서 양질의 물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다.

비교적 다른사람보다 얕은 20m정도의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물이 다행히 질과 양이 흡족하여 김씨의 두채업에 한몫을 해주고 있다.

"1.5인지 파이프로 24시간 퍼올려도 마르지 않아 별도로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직접 콩나물에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인지 콩나물이 다른데 보다 잘 자라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읍니다."

장흥지역은 콩나물의 시장이 한정되어 있어 두채업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런데도 간혹 신규업자가 나와서 기존질서를 깨뜨리곤 한다.

그래서,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해남군 등 전라남도 남쪽지방의 4개군 두채업자 전원이 모여서 남부두채협회란 명칭으로 친목단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회장직을 김영옥씨가 맡고 있다.

약 2년전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과잉생산과 덤핑, 상호거래처를 침범하는 등의 부당경쟁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스스로가 개발한 새로운 재배공법을 자신의 비방으로만 은닉하지 말고 상호기술 정보를 교환하므로서 나아가 콩나물의 품질개선에 힘쓴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월 회비도 징수하여 현재는 500여만원의 자체 사업기금도 적립되어 있다.

4개군의 전회원이라고 해야 고작 10명 내외이지만, 이렇게

소규모이고 좁은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곳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 12월 관내 업자들의 재배중인 콩나물을 해당관청에서 일제히 수거하여 갔으나 아직은 별 말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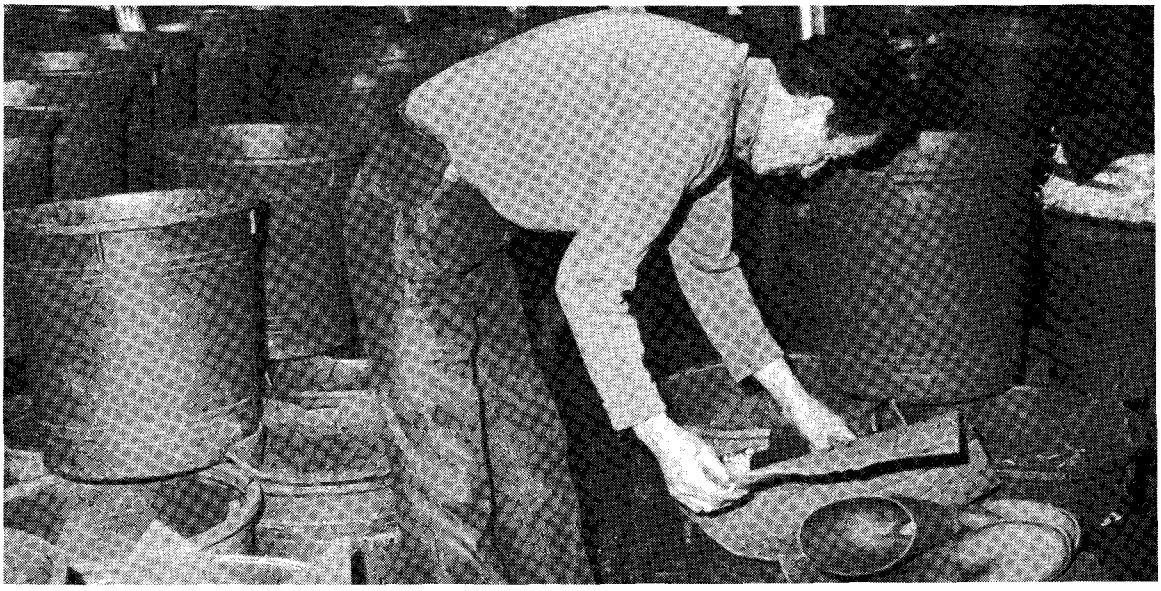
이렇듯 두채업자를 경시하는 태도가 이곳 지방관서 에서도 여전하다.

"때문에 두채업자 자체가 지역은 지역적으로 뭉치고 그 지역조직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강력한 힘으로 구성되어 중앙정부나 지방관서 등에 현 두채업계의 행정부재 상태를 제도화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함은 물론 일부 언론에 의하여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돼 있는 콩나물의 오명을 말끔히 씻고, 소비를 촉진한다면, 두채업자 자체는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고, 국민은 향상된 품질인 종합 영양식품을 섭취하므로서 건강에 도움이 될것 아니겠느냐?"

며 전체론을 펴기도 하고

"강력한 중앙회는 농약문제의 오명을 씻어줌은 물론, 안정되지 않은 원료콩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입쪽에까지 신경을 쓰고 일본 등 선진국의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콩나물에 대한 재배의 과학화나 공정의 자동화등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고 반문을 하기도 한다.

나이 60이 될때까지 화투한번 손에 대어 보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만 살아온 그는, 그의 인상에서 가날픈 콩나물을 연상될 정도로 전형적인 두채업자의 외형을 풍기고 있지만 언제까지 연약한 하나의 콩나물로만 전락하여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도 힘을 합쳐 강력한 힘이 되기위해서는 그 매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바로 "월간두채"라는 유일한 콩나물 전문지가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친목회 기금중 일부를 선듯 내어놓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게 써 달라는 그의 요청은, 현재의 업계의 문제점들이 공통되고, 업자들의 바램이 일치된다는 것을 직감하였고 필자로 하여금 한결 사명감을 갖게 하였으며 돌아서는 발걸음은 마냥 가볍기만 하였다.

바쁜 시간중에 시간을 내어준 김영옥씨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